

# 광주·전남 구도심 재생 기지가 커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국토부 사업기획단 출범

의견 수렴후 연내 대상지 선정  
광주 양동·여수 등 10곳 기대  
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동력 계기 활용 전망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광주·전남지역 쇠락한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사업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이나 공공시설·기관의 이전에 따른 쇠퇴지역, 기존 재생사업지역 등이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원주민의 거주,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거지속성 제고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인 만큼 과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어떻게 차별화시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현판식에서 김현미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44명 규모로 구성했다.

기획단 내의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의 지원 등을 담당하고,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단은 국토부 외의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사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의 파견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일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LH, HUG, SH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

해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계획을 정해 올해 내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를 발굴해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우선 서구 양동·발산 등 기존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호남고속철 노선에서 제외돼 쇠퇴한 광주역 주변, 북구 입동·서구 상촌동·동구 계림동·동명동 등 단독주택지역 등이 유력한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역시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의 원도심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노하우를 토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곧바로 재생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세계적 성악가 안젤라 게오르규 광주 방문

파바로티 추모 콘서트  
11월 15일 시향 협연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관련기사 17면〉 안젤라 게오르규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를 통해 광주문화회관(11월 15일), 서울 롯데아트홀(11월 17·18일)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올해 서거 10주기를 맞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추모 콘서트 월드 투어에 마련됐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 주최로 열리는 월드투어는 그의 기일인 9월 6일 이탈리아 베로나 원형극장에서 첫 공연을 진행



한다. 넓은 음악대와 부드러운 음색, 안팎한 연기력과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안젤라 게오르규는 게오르규 솔티가 지휘한 '라 트라비아'를 통해 이름을 알린 후 '가장 뛰어난 '미미', '가장 뛰어난 '졸리엣' 등의 찬사를 받는 정상급 프리 마돈나다. 이번 공연에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등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유진 콘이 지휘봉을 잡으며 테너 라메 라하, 바리톤 고성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613-823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곡성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기공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연계 차세대 전력산업 육성

곡성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와 곡성군은 4일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차세대 전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시험센터는 연면적 7818㎡(약 2369평), 지상 3층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국비 230억원·민간자본 70억원 등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기자동차, 철도, 선박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직류 전원을 사용해 제어하는 부품이다. 스위치, 개폐기, 배전반 등의 부품이 이에 속한다.

국내 시장은 진입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 정책과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력 분야 산업의

고도화 정책 추진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게 된다.

센터 운영은 시험·인증·검사 분야 대표 연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맡게 되며, 이를 위해 연구원 분원이 곡성에 들어서 100여명 연구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처장은 "열악한 국내 직류기기 부품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 기반을 전남에 구축,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전남이 국내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본격 가동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에너지밸리 연관 기업 500개사 유치 목표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완도 양식어민 50% "전북 전망 어둡다"

군 어업실태 조사

경쟁력 있는 업종 1위 '김'

완도의 대표적 양식업종인 전북에 대해 양식어민의 절반이 전망을 어둡게 봤다. 경쟁력 있는 양식업종으로는 김 양식이 1순위로 꼽혔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호남지방통계청과 군이 공동으로 '완도군 어업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완도지역 1212 어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어가를 방문하는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완도 어가 인구는 1만 733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어업경영형태별로는 양식업(76.5%)이 우위였고, 순수 어로업은 14.6%였다.

어민 소득도 1억원 이상이 39.3%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을 올렸다. 1억원 미만~5000만원이 23.6%, 5000만원 미만~2000만원이 17.9%, 2000만원 미만인 21.2%였다.

양식업종 중사 어민이 가장 많은 품종은 전북 양식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미역 8.3%, 다시마 7.9% 순이다.

특히 향후 전북 양식업 전망에 대해서는 양식어민의 절반인 50%가 어둡다고 답했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양식 품종은 김 양식이 1위(34.2%)로 꼽혔다. 전복(21.4%), 다시마(8.2%), 미역(7.6%) 등이 뒤를 이었다.

양식업이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기후변화(68.1%), 판매가격 하락(43.4%), 어장환경 변화(34.4%) 등이 지적됐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 문 대통령 G20 참석차 독일 순방길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5일 독일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에서 유럽의 맹주인 독일과 양자 외교를 하고 다자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수도 베를린에 머물며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에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40분 코



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 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하는 연설을 한다.

이러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로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계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광공인중개사

###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9번지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안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 원룸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 펜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 토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신방산천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탐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력의 노하우 **올레탐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 2017-062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325-4번지 1기 (원지번 325번지)
  - 전남 영암군 확산면 매월리 산38-4번지 14기 (원지번 산38-1번지)
2. 개장사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편입부지 공사
3. 공고기간: 2017년 5월 15일 ~ 2017년 8월 15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장업체에서 납골당에 안치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전남 순천시 역전길 16(조곡동)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77)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7월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